

9. 결혼인가 사역인가? Marriage or Ministry?

경쟁적인 요구들과 ‘불가능한’ 일정을 직면했을 때, 선교사들은 매우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느낌에 사로잡힐 수 있다. 그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고 느낄 수도 있고, 때로는 좋은 것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 받기도 한다.

결혼인가 사역인가?

1793년 4월4일, 윌리엄 캐리는 8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선교사가 되기 위해 인도로 가는 배를 타면서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임신 중에 있는 아내 도로시와 다른 두 아들을 남겨두고 떠나는 중이었다. 아내와 가족과 헤어지고 싶지는 않았지만, 윌리엄은 가족과 선교사역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가 인도에 도착할 수 없게 되자 집으로 돌아왔고, 결국 도로시를 설득하여 함께 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여전히 결혼 생활 보다는 선교사역이 더 중요했다. 인도에서의 결혼 생활은 좋지 않았다. 1808년 도로시가 사망한 후에 윌리엄은 1809년 샬롯과 재혼했다. 그때서야 윌리엄은 선교와 결혼 생활 중 한 가지를 선택할 필요가 없고, 사역과 결혼 생활을 잘 조화시켜야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윌리엄과 샬롯은 사역 중에도 사랑의 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1821년 샬롯이 사망한 후에 윌리엄은 한 남자가 살면서 감당해야 하는 가장 큰 상실은 아내의 죽음이라고 했다. 오늘날 어떤 교회나 선교단체도 누군가 선교지로 가고자 할 때 결혼 생활과 가족을 파괴하도록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일부 선교사들은 결혼과 사역 중에 한 가지를 택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만일 결혼 생활과 사역 일정이 중복될 경우, 그들은 ‘양자택일’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결혼 생활보다 사역을 선택한다.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다행히도 성경은 우리에게 남편과 아내가 타 문화 사역을 함께 했던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역을 할 때 항상 같이 나온다. 때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로 언급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나오듯이 그들은 항상 함께 한다 (행18장, 롬16장, 고전16장, 딤후4장).

아굴라는 현재 터키 북쪽, 흑해 근처 본도에서 성장한 유대인으로 제3문화 자녀였다. 본도에서 온 사람들도 오순절에 참석했었다 (행2:9).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여러 나라의 선교사가 되었다.

- 그들은 이태리에서 헌신 했으나 유대인을 추방하라는 명령 때문에 그 곳을 떠나야 했다 (행18:2).
- 그 다음에 그들은 고린도에서 천막 만드는 자가 되었고, 바울을 접대하면서 그에게 일감을 주었고 (행18:3), 가정 교회를 제공했다 (고전16:19).
- 후에 그들은 에베소에서 그들의 집에서 제자 사역을 하면서 섬겼다 (행18:26).

따라서 우리는 이 부부가 유대 문화에서부터 로마 문화로, 헬라 문화로, 아시아 문화로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들은 항상 다양한 사역을 함께 했고, 어느 한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고, 한 팀이라고 여겼다. 그들은 결혼 생활과 사역을 동시에 한 아주 좋은 본보기이다. 사역과 결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둘 다’ 즉, ‘결혼 생활과 사역 둘 다’라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함께 헌신할 수 있느냐의 문제였던 것이다. 그들은 함께 사역했고, 사람들은 그들을 한 팀으로 보았다.

결혼 생활은 사역인가?

많은 선교사들은 결혼 생활이 하나의 사역임을 알게 되었다. 한 여자 선교사가 다음같이 말했다. “우리는 신학생들이 우리가 가르치는 강의보다 우리의 삶을 골똘히 묵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가 현지인들에게 크게 들려지기 때문에 오히려 당신이 하는 말을 그들이 못 들을 수도 있다.

학생이나 교인이 몇 년 후에 찾아와서 어느 특정 강의나 설교가 그들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말해 준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찾아와 말해주기를 곁에서 유심히 보았던 선교사의 행동, 삶, 결혼 생활이 그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고 했다. 선교사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외교관(ambassador)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한다.

다른 신자들처럼 선교사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타 문화권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그리스도의 대사이다(고후5:20). 현지인들이 선교사 집에 들어올 때, 그들은 하나님의 대사관저에 들어가는 것이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대하는 모습과 방문자들을 대하는 모습은 현지인을 향한 하나님의 애뜻한 마음을 반영한다.

초대교회 시절 사역과 결혼 생활은 어땠는가?

성경은 남편과 아내가 선교사로서 함께 사역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성경은 남편과 아내가 선교사에 의해 세워진 교회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다.

디모데는 루고니아(Lyconia)에 있는 루스드라(Lystra) 마을에서 제3문화 자녀로 자라났다.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 신자였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행16장). 디모데는 바울의 두 번째 선교여행 중에 바울과 동행하게 되었으며, 바울과 실라와 함께 그리스, 마케도니아, 아시아 등 많은 나라를 여행했다.

선교단의 지도자였던 바울은 마케도니아로 떠나갈 때,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 남아서 현지인들의 문제를 처리하라고 부탁했다(딤후1:3). 이후에 바울은 아마 로마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교회 지도자 자격을 포함하여 몇 가지 문제들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 가르쳤다(딤후3장).

- 교회의 지도자들(교회 내 모든 남성들)은 점잖고, 절제하며, 대접을 잘하고, 온화하고, 다투지 아니하며 등(딤후3:2-10).
- 그들의 배우자들(아내들)도 단정하고, 절제하며, 신뢰할 수 있는 등(딤후3:11).

교회 지도자는 지정된 지도자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배우자 역할도 감당해야 된다. 비록 이것이 선교사 자신보다 교회 지도자로 세워진 현지인들에게 주는 가르침이었다 하더라도 그들을 감독하는 선교사들에게만큼은 분명히 기대되었을 것이고, 아마 더 했을 것이다.

결혼과 사역? Marriage and ministry?

하나님이 우리로 사역과 결혼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또한 이상적으로 우리의 결혼 생활이 사역이 되기도 하지만, 선교사들은 여전히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한다. 너무나 많은 일들이 그들의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결혼과 사역 둘 다에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다. 다음은 이러한 선택에 직면했을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이다.

첫째, 모든 사람에게서는 하루에 24 시간이 주어진다. 사람들은 재산, 체력, 지적 기량 등에 있어서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정확히 하루에 24시간을 가지고 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각자의 책임이다. 사람들이 “시간이 없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의 의미는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모두가 다 주의해야 할 것은 좋은 것이 더 좋은 것을 밀어내지 말고, 또한 더 좋은 것이 최고의 것을 밀어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당신이 무엇을 말하는가 보다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재촉할 필요가 없었다. 자녀들은 아버지를 본받는다! 물론 당신을 본받으라고 사람들을 재촉하기 전에, 당신이 ‘말한 것을 반드시 실천’해 보여야 한다. 전에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로 보냈듯이, 바울은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로 보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의 삶의 방식은 ‘모든 교회에서’ 그가 가르쳤던 것과 일치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도록 했다 (고전4:16-17).

셋째, 결혼 생활과 사역 일정을 의도적으로 정한다. 선교사들은 관계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선교단체나 선교후원자들이 있는 시간 중심 문화권에 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선교사들은 배우자, 자녀, 동료, 현지인과의 관계보다는 보고할 통계로 제시해야 할 것들에 좀 더 힘쓸 것이다. ‘관계를 위한 시간’이 없으면 결혼 생활은 악화될 수도 있다.

몇 년 전에 나와 나의 아내는 결혼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는 주말 프로그램에 초대를 받았었다. 그러나 그 프로그램 진행자가 두 번째 이혼 수속을 밟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당신이라면 참석하겠는가? 우리는 결혼 상담을 하던 어느 부부를 알고 있었다. 그들은 이혼했고 그 남편은 어느 의뢰인과 재혼을 했다. 당신이라면 당신의 결혼상담을 위해 그 중 한 명을 찾아 가겠는가? 그렇다면 다른 이들을 위해 부부상담을 하느라고 바빠서 서로에게 시간이 없는 선교사한테 상담하러 찾아가는 현지인들은 어떻겠는가?

바울은 그가 개척했던 초대교회에게 남편과 아내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디모데를 남겨두었던 에베소 교회에게 바울은 결혼에 대해 가르치기 위해 서신을 썼다. 5장 마지막 부분은 ‘머리 되신 그리스도’로 읽혀지기 보다는 남편이 머리’라는 의미로 종종 해석되어 왔다 (엡5:21-33).

남자다움을 과시하는 남성이 아내보다 훨씬 더 월등하다고 여기는 지역의 나라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은 반드시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 남성다움을 과시하는 남편이나 그 아내도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할 지라...”는 구절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앞에 “피차 복종하라...”는 구절은 아쉽게도 놓쳐버린다 (21절).

하나님이 얼마나 자주 언급되는지 참고하라.

- 주께 하듯... (22절)
- 그리스도가...구주이듯이... (23절)
- 그리스도에게...그러듯이... (24절)
-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고...자신을 주심같이... (25절)
- 자신에게 하듯이... (27절)
- 그리스도가 하듯이... (29절)
- 그리스도에 대한... (32절)

예수님이 대계명을 두 부분으로 율법을 요약해서 말씀하셨듯이, 그와 병행하는 다음의 명령이 전체 구절을 요약하고 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25절) 그리고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33절).

관계는 종종 ‘결과’ 보다 더 중요하다. 사역 못지 않게 결혼 생활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를 당신의 삶 속에 본보기로 둔다면, 삶이 운택해질 뿐만 아니라 현지인들도 그들의 삶에서 당신을 본받을 것이다.

† 이 브로셔는 저자 로날드 코테스키 박사의 원문(Ronald Koteskey: www.missionarycare.com)을 저자의 승인 하에 올네이션스선교센터(www.anmcusa.org)에서 번역한 것으로 한국어 판권은 올네이션스선교센터에 있습니다.